

관세청, 미국 관세 대응해 납세자 보호 적극 나선다

- 관세청 차장,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 개최
- 미국 관세정책 대응 상황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 논의

□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(목)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*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.

* 인천공항세관, 서울세관, 부산세관, 인천세관, 대구세관, 광주세관

○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. 관세청은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,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.

○ 이와 연계하여,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“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”라며,

○ “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납세자보호팀	책임자	팀 장	유재상 (042-481-3255)
		담당자	주무관	진선미 (042-481-7757)